

## 세 천사 기별이 무엇인가?

세 천사 기별 ( 계 14:6-12)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세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는 영감의 말씀으로 각기 제 위치를 찾게 되었다. 단 하나의 못이나 말뚝도 옮겨서는 안 된다.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신약과 구약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기별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다. 신약 성경은 실체이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교훈들을 증거하고 있으며 이 교훈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아직도 상실하지 않았다.

첫째와 둘째 기별은 1843 년과 1844 년에 주셨으며 현재 우리들은 셋째 기별의 선포 하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가지 기별들을 모두 선포해야 한다.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긴요한 일이며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 거듭 반복하여 전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펜과 음성으로 이 기별들을 선포해야 하며 이 기별들의 순서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예언들의 적용성(適用性)을 증거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가 없이 셋째가 있을 수 없다. 우리들은 출판물들이나 설교를 통하여 이러한 기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사실들을 예언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증거해야 한다.  
(2 기별, 104-105)

계시록 14 장은 깊은 흥미를 자아내는 장이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뜻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계시자 요한에게 주어진 기별들은 분명한 말로 반복될 것이다. (리뷰 1904. 10.13) "(화이트주석, 계 14:6-12)

요한계시록 14 장의 기별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이다. 그것은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무지의 죄악 가운데서 멸망해 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관을 위탁하신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들을 무관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 그들에게 위탁 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교회증언 8, 27)

나는 세 단계로 되어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에 일점일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초기문집 258)

특별한 의미에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일찍이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엄숙한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졌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과업에 성실해야 한다. (교회증언 9, 19)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들은 참으로 중요하며, 셋째 천사의 기별 뒤를 잇는다. 세 기별 모두 이해되고 결합되어야 한다. 이 기별들에 포함된 경고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다수가 깨닫고 있는 것 이상으로 온 세상을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예비의 큰 날에 살고 있다. {17MR 236.2}

하나님께서서는, 고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그분의 교회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셨다. 진리의 예리한 칼,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으로써 그분은 그들을 교회들로부터, 또한 세상에서 분리시켜 그분 자신에게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예언의 진리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거룩한 성경 말씀처럼 이것들은 세상에 전하여져야 할 신성한 위탁이다. 요한계시록 14 장의 세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방방곡곡에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그분의 대리자로서 나가는 백성을 대표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고 선언하신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갈바리의

십자가는 말한다.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어떤 것도 이 사업을 방해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 시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그것은 영원처럼 멀리까지 미쳐야 할 사업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구속을 위하여 겪으신 희생을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 나타내신 사랑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행동하게 할 것이다. — 교회증언 5 권, 459, 460.(교권, 58)

요한계시록 14 장은 우리 구주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사업의 개요를 담고 있다. 거기에는 지구 모든 거민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세가지 기별이 대표되어 있다. {ST, January 25, 1910}

## 세 천사들

그리스도는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 사건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편지 79, 1900). (화잇주석, 계 14:6-12)

이 세 천사들은 하나님의 기별들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대리자들로 온 세상에 경고를 전하러 나가는 백성들을 대표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에게 갈바리의 십자가는, "영혼의 가치를 보라, 너희는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한다. 어떤 것도 이 사업을 방해하도록 허용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 시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요 그 결과는 영원에 미칠 것이다. {ST, January 25, 1910 par. 5}

### 1) 첫째 천사 기별 : 14:6-7

계 14: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 **구속의 경륜** - 죄가 들어 오기 전에 하나님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께서 계획을 세우신 복음이었고, 죄가 들어 온 후에도 복음이 되며, 죄가 끝난 후에도 영원토록 복음이 됨

- 속 6:13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 갈 3: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마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 계14: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14: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큰 음성으로** :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뜻이다. (화잇주석, 계 14:9-12)

**하나님 :**

- 롬 15:6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 엡 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 고전 8:6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 요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 창조주(하나님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 히 1:1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 히 1: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 골 1: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 시33:6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 시33:9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 히 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경배와 영광돌림**

- 계 5: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찌어다 하니
- 계 7:10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계 22:1,3)

계 14:7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원고 16, 1890). (화이트주석, 계 14:7-8)

### 심판하실 시간

- 단 7: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 단 7:13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 단 8: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 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 답: 이천 삼백 주야의 끝이되는 1844 년 부터 조사심판이 시작됨

### 2) 둘째 천사의 기별

계 14:8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 14 장에는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계 14:8)라고 선포한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Babel)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고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요한계시록 17 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되었는데, 성경상으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되, 정숙(貞淑)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쟁투, 381)

요한계시록 17 장의 여자(바벨론)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선지자는 “또 내가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고 말한다. 또한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계 17:4-6, 18)고 선포되어 있다. 그리스도교국의 모든 왕들에 대하여 여러 세기 동안 전제적 세력을 휘둘러온 세력은 로마이다. 그 자주 빛과 붉은 빛이며, 금과 보석과 진주는 거만한 로마 법왕에 의하여 취해진 존귀와 일반 임금들보다 뛰어난 위세를 여실히 묘사해 준다. 또한 “성도들의 ... 피에 취한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교를 매우 잔혹하게 박해한 로마교 이외에는 그런 세력으로 인정받을 만한 세력이 없다. 바벨론은 또한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불법적 관계를 맺는데 대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일찍이 유대교는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는데, 로마교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타락함으로 그와 동일한 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바벨론은 “음녀들 ... 의 어미”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 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교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교는 이미 여러 세기 동안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18 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어떠한 종교 단체에 속해 있는가?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 속하여 있다.

그리하여 바벨론, 곧 혼잡이라는 말은 그런 모든 단체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말할 수 없이 많은 수효의 교파로 나뉘어지고 각각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신조와 이론을 가진 그 여러 단체들에게 작용되기에 꼭 알맞다. 소위 로마교에서 분리되어 나왔다는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으로 더불어 최악적인 결합을 계속할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로마교의 다른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다.”(쟁투, 382-383)

### 진노의 포도주=거짓 교리들

바벨론에게 선고된 큰 죄는 그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죄이다. 그가 세상에 주어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가 세상의 세력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로 얻은 거짓 교리들을 의미한다.” (쟁투 488)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의 거짓 교리이다. 그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주었으며 사단이 처음으로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영혼의 본성적인 불멸성-을 반복하였다. 그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며 유사한 많은 오류를 널리 그리고 멀리 퍼뜨리었다.”(3 기별, 405)

**바벨론의 거짓 교리들:** 천주교의 기둥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 일요일 신성설, 영혼 불멸설, 영원 지옥설, 죽은 자 승배, 화체설, 세례, 등등.....

### 3) 셋째 천사의 기별

계 14:9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계 14: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계 14: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이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있으나 이 기별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다. 이것은 현대 진리이다. 그러나 얼마나 소수가 이 기별의 참된 의미를 부여잡고 백성에게 그 참된 능력으로 기별을 제시하는가? 많은 이들에게 그 효력이 너무 적다. {1888 165.4}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에 의하여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의 절반도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다고 나는 말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은 그들이 신임하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설교했기 때문에 진리를 믿고 있다. 우리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 우리가 오늘날 듣는 불평들을 적게 들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ST, November 11, 1889 par. 11}

셋째 천사의 특별한 사업은 그 중요성 그대로 아직 나타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날 처해 있는 위치보다 훨씬 더 전진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된 지금, 그들은 해야 할 준비가 있다. 국가의 개혁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강요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지도적인 사람들은 그 사태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했고, 그 노력을 좌절 시키기 위하여 열렬하게 활동했어야 했다. 빛, 곧 우리 백성들이 이 시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그 현대 진리가 그들에게 비취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목사들이 그 기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사실상 이해하지 못한다. (5 증언, 714-715)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들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였다는 말씀에 대하여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가? 지금은 무활동의 상태를 봐줄 수 있는 때가 아니다. 만일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우리 목사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더라면 우리 교회들은 지금 전혀 다른 상태 가운데 있을 것이다. {RH, December 11, 1888 par. 14}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새대를 위한 위대한 구원하는 진리를 계시한다. 그 진리들은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어린이들과 청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총명하게 이해하여 의와 죄, 순종과 불순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Manuscript 67, 1909, p. 3. ("A High Standard," October 7, 1909.) {9MR 292.2}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원칙들이 명백하고 뚜렷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신앙의 위대한 기둥들은 그 위에 놓여진 모든 무게를 감당 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기록되었으되"라는 경계선 안에서 행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Ms 82, 1894.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에 빛을 더하여 주므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오, 온 하늘이 세상의 구원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되고자 분발할 것이다. {RH, August 18, 1891 par. 7}

예언은 첫째 천사가 그의 기별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삼중 기별의 일부분이자 이 시대를 기별인 셋째 천사의 경고는 이보다 더 광범위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 새겨진 깃발은 높이 들려져야 한다. 첫째와 둘째 기별의 능력은 셋째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이 기별은 예언 중에 공중을 날아가는 한 천사에 의해 큰 소리로 전파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세상의 주목을 끌 것이다. (ST, January 25, 1910 par. 12)

이 기별(계 14:9-12)은 앞선 두 기별들을 포괄한다. 그것은 큰소리로 전파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된다. — 7BC, 980(1900)."(사건, 201)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강화되어야 하고 확증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8 장은 어떤 틀에 박힌 방법보다도 담대하고 능력있게 진리를 증거해야 할 중요성을 나타내 보여 주고 있다. ... 기별을 전할 때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만큼 분명하고 뚜렷하게 증거하지 못하였다.— 원고 16, 1900 년" (전도, 230)

죽을 인간들에게 선포된 가장 엄숙한 경고와 가장 끔찍한 협박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다.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죄는 가장 극악한 성질의 죄악이다. 세상은 이 죄악의 성질에 대해서



무지 가운데 내버려질 것인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진노는 알지 못하는 죄에는 임하지 않는다. 그분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기 전에 이 죄악에 대한 빛이 세상에 제시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심판이 왜 임하는지 깨닫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ST, November 1, 1899 par. 7}

### 셋째 천사:

계시자 요한은 시대를 미리 바라보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외치는 셋째 천사를 바라보았다.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하늘의 기별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의 아들을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종교적 교사들의 부류임을 배울 수 있다. 셋째 천사의 엄숙한 경고는 그 진실성을 보고 느끼는 자들에 의해서 전해져야 한다. 세상은 부주의하고 불경건하게 오류의 길로 가고 있다. {RH, February 28, 1882 par. 3}

이것은 공중에 날아가는 셋째 천사가 선포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계 14:9-10)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 세상과는 두드러지게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에서 빛나가지 않는 작은 무리가 서 있다. 그들에 대하여 이사야는 하나님의 율법의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황폐된 곳들을 세우며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자들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ST, November 1, 1899 par. 6}

개혁자들이 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주어져 있다. 그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깃발을 들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열렬하게 오래 황폐된 곳들을 세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누가 그들을 가리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일컬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일컬으셨다.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 개혁자들, 수보하는 사람들로 적혀있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사람들로 등록되어 있다(리뷰 1891. 10. 13) (화잇주석, 사 58:8-14)

**큰 음성으로** :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앞서서 전해진 두 기별을 포괄한다. 그것은 “큰 음성”으로 전해진다고 한다. 곧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뜻이다. (화잇주석, 계 14:9-12)

### 짐승과 그의 우상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만들게 되며, 처음 짐승에 대한 우상이 된다. 그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곧 법왕권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쟁투 433)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쟁투 446)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 :** 천주교와 타락한 개신교의 압력(법령)에 굴복

**짐승의 표:**

짐승의 표란 무엇인가?—요한은 주일 중 첫날을 지킴으로써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한 백성을 보라는 요구를 받는데, 바로 이날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이다(편지 31, 1898). (화잇주석, 계  
14:9-12)

짐승의 표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인 법왕권이 제정한 안식일을 의미한다.  
(원고 51, 1899 년 )

짐승의 표를 쳐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계 13:16, 17)—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전해졌는데, 이 기별은  
사람들에게 짐승과 그 우상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기별이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이 내린 결정과 꼭 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함에 있어서  
짐승과 꼭 같은 생각을 옹호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모두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화잇주석, 계 14:9-12)

짐승의 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를 피할 수가 있을까를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한다. 왜 사람들은 짐승의 표와 그 우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과 직접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출 31:12-17 인용). (화잇주석, 계 14:9-12)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님(계 14:1-4)—대쟁투의 계쟁점으로 인해서 세상은 두 편으로 나누이게 된다. 즉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곧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진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다. (사인즈 1899. 11. 1).  
(화잇주석, 계 14:9-12)

양의 새끼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이 명령한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계 13:16, 17). 여기 말하는 표는 곧 셋째 천사가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바로 그

표이다. 그 표는 첫째 짐승 즉 법왕권의 표로서 그 세력의 현저한 특징으로 부각될 것이다. 선지자 다니엘은 “작은 뿔”로 표상된 로마교회가 “때와 법을 번개하고자”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단 7:25), 바울은 이 세력에 대하여 “불법의 사람”(살후 2:3, 4)이며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일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함으로써만 법왕권은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이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턱대고 지킨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번개한 세력에 대해 지극한 경외를 표하는 것이 된다. (살아, 382)

###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칠재앙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자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초기 289)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낸 가장 두려운 경고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다.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은 분명히 무서운 죄악이다. 사람들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모르고만 있을 것이 아니다. 죄악에 대한 이러한 경고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기 전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받을 이유를 알고 또한 그 재앙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살아, 383)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마지막 칠재앙 (계 16 장)

계 16:1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 성도들

=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계명(법) = 십계명 (출 20:1-17)**

하나님의 법은 모든 영속적인 개혁의 기초이다. 우리는 분명하고 뚜렷한 방법으로 이 율법을 순종할 필요를 세상에 제시해야 한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은 근면과 절약과 진실과 사람 상호간의 공정한 관계에 대한 가장 큰 동기가 된다. (8 증언, 199)

하나님의 법은 가정에서 교육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부모는 이 율법을 순종하고 가장 엄격한 성실의 모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를 지고 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감화가 멀리까지 미치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길과 사업을 잘 지키고, 그들에게서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시 111:10). 여호와의 음성을 부지런히 듣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무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8 증언, 199)

### **예수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복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곧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은 그 진전된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의하여 거짓 빛으로 불려질 것이다. 수행되었어야 할 사업은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의 불신에 의해서 마쳐지지 않은 채로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지 말라고 진리의 빛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간청하는 바이다. 하늘이 보낸 빛이 그들에게 명백하고 꾸준하게 비취게 하라. 이 빛을 받은 자들이 빛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도 책임을 물으실 것인데 진리가 그들의 수중에 왔음에도 그들은 그들의 기회들과 특권들을 경멸하였기 때문이다. 거룩한 신임장을 받은 기별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졌으며,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의가 선과 진리의 충만함으로 제시되었고, 그 마음이 편견으로 닫혀지지 않은 모든 마음들을 매료시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과 매력으로 제시되었다. {RH, May 27, 1890 par. 6} {1888 673.6}

만일,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이 지니고 있는 정신과 능력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함께 소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땅에 속한 한 세력이 불순종의 자식들을 동요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진리를 유린하는 한편, 위에 속한 한 능력은 충성되고 율법을 높이며 예수님을 온전한 구주로 받드는 자의 마음에 역사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거짓 교리와 거짓 사상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잃어버리게 되며, 따라서 그 믿음은 능력과 생명이 없어질 것이다. (복음, 161-162)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모든 부분에서 전파되어야 마땅한데 이는 백성들이 그것의 일점 일획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전파하고 다른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면 기별은 우리의 손에서 손상된다. {1888 367.1}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인들에 의하여 선포되어 오지 못했다. 율법과 복음은 함께 나아간다. 나는 이 주제를 완전히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한다.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이해되지는 못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였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유일한 안전은 문설주에 바른 피였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출 12:13)라고 말씀하셨다. 안전을 위한 다른 모든 방법은 다 소용이 없었다. 문설주의 피 외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죄인을 위한 구원이 있다. 그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계발된 지성을 가진 사람은 광범한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신학적 사색에 종사할 수도 있고 위대하며 사람들로 부터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지식의 보고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그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지 않는다면, 그는 잃어버린 바 된다. (3 기별, 172)

나의 안내자는 말하였다. '하나님의 율법과 의의 복음에서 더 많은 빛이 흘러나와야 한다. 이 기별의 참된 성격을 이해하고 성령안에서 선포한다면 그것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게 될 것이다. 중대한 결정적인 질문이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 앞에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천사 기별의 마지막으로 마무리짓는 사업은 의의 태양광선을 삶의 모든 높고 낮은곳에 능력 있게 보낼 것이며 최고의 통치자인 하나님을 위한 결심들이 내려질 것이고 그분의 법은 그분의 정부의 규칙으로 여겨질 것이다. {1888 166.1}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 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했다. — 가려뽑은 기별 1 권, 372(영문)(1890)."(사건, 199-200)

주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외에 자신의 능력이나, 선행, 혹은 율법주의적인 종교를 신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라고 그분의 종들에게 의무로 주신 기별은 새롭거나 신기한 것이 아니다. 사단이 그의 교묘한 노력으로 숨겨놓은 옛 진리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충성된 모든 백성들이 할 일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예수의 믿음을 그것의 자리 곧 셋째 천사의 기별에 가져다 놓는 것이다. 율법도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 전체적인 최고한 의의 표준 곁에 그리스도의 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아무 효력이 없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롬 7:12) {1888 375.2}

예수 믿음은 간과되고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게 취급되어 왔다. 그것은 요한에게 계시되었을 때의 그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해 왔다. 죄인의 유일한 희망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은 행해진 설교에서뿐만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매우 많은 사람들의 종교적 경험에서도 널리 배제되어 왔다.

이 집회에서 나는 율법과 연관된 그리스도의 의의 위대한 주제를 제시함을 통해 가장 고귀한 빛이 성경으로부터 비취 나왔으며 그것은 죄인의 앞에 구원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끊임없이 제시되어야 함을 증언했다. 이것은 내게 새 빛이 아니었다. ... 이 위대한 문제에 대하여 말해지고 쓰여진 것이 매우 적다. 어떤 이들의 설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가인의 제물과 같다고 묘사해야 옳을 것이다.”(3 기별, 168-169)

가인의 제물은 그리스도가 없는 제물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다. 이제 한 밝은 빛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게 한다. 우리는 모든 빛을 받아 그리로 행하여, 심판하실 때에 정죄함을 받을 것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깨달을수록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더욱 중대하여진다. 빛은 흑암 속에 감춰져 있는 오류를 지적하여 고쳐 준다. 빛이 이를 때에는, 사람의 생애와 성품이 그 빛과 일치하기 위하여 변화되어야 한다. 전에 마음이 캄캄할 때에는 죄됨을 알지 못하고 범한 것이라도, 이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미 많은 빛이 주어졌으므로, 사람들은 개선되고 향상되고 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빛을 받기 전보다 더 악해지고 완고해질 것이다. (복음, 162)

오랫동안 오류의 쓰레기 속에 감춰져 있던 것으로서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될 놀라운 진리들이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잊어버렸다. 신성파(神性派)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극단적인 이론을 주장하였다. 저들은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생각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교훈은 성경의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그러한 신앙의 근거가 없다. 이러한 교훈은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진리의 고귀한 구슬이 아니다. 이러한 교리는 정직한 영혼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빛은 율법을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는 범한 자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이시며 그분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죄와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다(리뷰 앤 헤랄드, 1889 년 8 월 13 일). (1 기별, 360-361)

주님께서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목사, 91)

들림을 받으신 구주께서는 값없는 언약의 축복 즉, 그분을 믿는 모든 영혼을 위하여 얻으시려고 죽으신 유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보좌에 앉으신, 죽임을 당한 어린양으로 그분의 효험 있는 사업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은 생동감 있게, 능력 있게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야 했는데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 공로를 붙잡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향기로운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따뜻한 피를 뿌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효력을 간구할 때, 우리 기도는 우리 구주의 품성의 공로의 향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 모든 죄를 그분은 제거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교회의 생명이다. 광야에서 모세에 의하여 뱀이 들려지고, 불뱀에게 물린 모든 이들에게 쳐다보고 살라는 명령이 내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져야만 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목사, 92-93)

죄인이 들림 받으신 구주를 바라보는 일을 필생의 사업으로 삼고,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께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었던 베드로처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목사, 93)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참여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간 매개자들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말아야 하며,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목소리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해야 한다. 그것은 능력과 영광으로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목사, 214)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기를 그만둘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 그들의 능력을 더하시는 분을 삼을 때, 서로 사이에 더욱 깊은 신뢰심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신뢰가 지극히 적다. (목사, 214)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뿜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에 의하여 도처에 있는 그분의 위대한 도덕적 포도원에서 모습을 드러내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성령의 영감을 통회하는 심령의 사람 모두에게 베푸실 것이다. (목사, 214)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성경 주제를 험담하고 흠잡으며 의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오도록 허락하신 밝은 빛의 광선을 차단하는 어두움의 무리로 자신들을 놓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올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능력으로 나가서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것이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할 수 있겠는가? 그가 어두움을 선택하고, 어두움을 사랑하며 그 어두움에 가려있도록 버림을 받아도 기별은 그것과 함께 전진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도 능력으로 나아갈 것이다. {1888 463.4}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셋째 천사 기별의 증가하는 빛과 함께 전진하지 않으면 그들은 확실히 소경들의 눈먼 인도자들이 될 것이다. {1888 478.1}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그것이 우리의 기반이 되게 하고, 우리 신앙의 진수가 되게 하라.— 리뷰 앤 헤랄드, 1905 년 8 월 31 일

위대한 사업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죄를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 빛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사업이 마칠 때까지 세상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이실 것이다. (6 증언, 20)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복음사업이 마쳐지는 때에 그분은 마지막 시련 곧 대쟁투를 종결 는 투쟁에서 당신의 백성이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실 것이다. (7 주석 983)

인간의 노력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게 하고자 신령한 능력을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구속의 경륜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오직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의 과정이 없이는 근본적인 죄의 성벽이 전과 꼭 같이 마음속에 남아 있게 되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새로운 사슬로 묶어서 노예가 되게 할 것이다.— 리뷰 앤 헤랄드, 1890 년 8 월 19 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생각은 얼마나 귀한 생각인가!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면 자기의 힘이 무력하여질 것을 알므로 이 진리가 명백히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의심과 불신과 어두움을 경험하게 하면, 사단은 그들을 시험에 빠뜨려 정복할 수 있게 된다. (복음, 161)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믿음을 장려하여야 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기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시험에 빠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서 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믿음이 점점 더 굳세어져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실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요일 1:7)이라 말한 것과 같이 깨끗해져야 한다. (복음, 161)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그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셨다. 그분은 율법의 가르침을 순종할 힘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하여 죄인은 그의 범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와 “오 아버지여,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통하여 용서를 간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나아 오는 모든 이들을 받아 주실 것이다.-원고 16, 1888, 일요일, 1888 년 10 월 21 일. (3 기별, 180)

그대들의 말과 기도에는 그리스도,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분의 위대한 희생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으므로 사단이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져야 하며 가지지 않으면 안되는 견해를 거의 어둡게 하였다. 우리는 영적인 도움을 위하여 인간을 덜 신뢰해야만 하며 훨씬 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는 단호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속성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할 수 있으며,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분의 공훈을 말하고 노래하며, 그분을 우리의 개인적인 구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신 죄를 미워한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말하며 곰곰이 생각해야만 한다. (3 기별, 183)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상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사업을 마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 6T, 19(1900). (사건, 200)

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들의 거짓된 자중-그들의 자화자찬과 그들의 자존심을 쓸어버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만유 속에 계시고 만유이신 그리스도 밖에는 그대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 것이다. {16MR 236.1}

### **셋째 천사 기별의 종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초기, 254)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의 빛으로 얼굴이 환해져서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각 종교 단체들에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이 부름에 응하여 귀한 영혼들이 롯이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서둘러 나왔던 것처럼 운명지어진 교회들에서 급히 나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 위에 임한 찬란한 영광으로 강해져서 시험의 때를 견디도록 준비되었다. 나는 도처에서 수많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초기, 278-279)

### 넷째 계명 (안식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안식일 문제는 온 세상이 다 가담하게 될 대쟁투의 계쟁점이 될 것이다(계 13:4-8, 10 인용). 13 장 전체는 확실하게 성취될 일에 대한 계시이다(계 13:11,15-17 인용)(원고 88, 1897). (화이트주석, 계 14:9-12)

법궤 안에는 금으로 된 만나 단지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책과 같이 접어진 두 돌비가 들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돌비를 펴셨고 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을 보았다. 한쪽 돌비에 있는 네 계명이, 다른 쪽 돌비에는 여섯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첫째번 돌비에 있는 네 개의 계명이 다른 쪽의 여섯 계명보다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리고 네 계명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었다.....그런데 로마 법왕은 안식일을 주일 중 일곱째 날에서 주일 중 첫날로 변경시켰다. 그것은 그가 때와 법을 번개코자 했기 때문이었다. (초기, 32-33)

한편 나는 안식일을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빛을 거절하지 않았다. 환난의 때가 시작될 즈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 온전(충만)하게 선포하였다. 다른 교회들과 이름뿐인 재림신도들은 그들이 안식일의 진리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몹시 격분할 것이었다. 이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진리 편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들에게서 나와 우리와 같이 핍박을 견딜 것이었다. (초기, 33-34)

로마교회가 번개하려고 했던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십계명 중에서 참 하나님을 모든 거짓 신들로부터 구별하는 유일한 계명이다. 안식일은 창조 사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살아 계신 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하나님의 창조력에 대한 사실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성경 전체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 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며 따라서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이교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살아, 382-383)

교회와 세상의 역사는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못한 자를 여기에 뚜렷하게 밝혀주고 있다. 충성된 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를 듣고 저들의 발길을 돌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예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도리를 따른다. 반대하는 세력은 당신의 율법에 침해를 입히므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며 당신의 말씀의 빛이 거룩한 계명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법왕의 권한으로 율법이 훼손된 것을 나타내 보여줄 때 저들은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체의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저들이 율법을 없앨 수 있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었다. 성경을 탐구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변역함이 없고 영원하며 당신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지속되고 모든 거짓된 신들과 구별하여 오직 참된 하나님만을 가리킬 것이다. (2 기별, 107)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쟁투, 605)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너무 광범위하게 무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이 계명을 존중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고 단호해져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 제시해야 하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서 우리를 위한 시험을 가지고 계시며, 만일 우리가 표준에 올라오면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넷째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 자신과 세상을 분리시키는 선이 그어져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안식일은 인간의 요구에 대한 시금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시금석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분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구분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의 마지막 대쟁투가 일어날 것이다. (HS 215.2)

만약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와 심한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세상권위가 개입할 것이다. 그대는 고초를 겪을 것이며,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이며, 거치른 말과 조롱과 박해를 당할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야 따를 수 있는 관습과 법률을 따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으로 가는 길에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거룩하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표징이라면 우리는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원고 3, 1885).

셋째 천사의 기별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나타내기를 요구하며 이 진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력의 가장 큰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시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둘째 자리로 밀려났으며 이론과 논쟁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1 기별, 383)

주님께서서는 시온성 위에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셔서 저들로 크게 외치며 아끼지 않고 저희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주님의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게 하신다. 주님께서서는 진리의 원수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대항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허용하셨다. 주님께서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시금석이 되는 안식일 문제에 관하여 뚜렷한 관심을 일으키도록 계획하셨다. 이 방법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큰 권세를 가지고 외칠 수 있는 문호를 개방시킬 것이다. (2 기별, 370)

마지막 날에 치러질 전쟁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항하여 모든 부패한 세력들이 연합할 것인데,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에 충성하지 않고 배역한 자들이다. 이 전쟁에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큰 논쟁점이 될 것인데 이는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위대한 율법의 시여자는 당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자로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3 기별, 392-393)

안식일은 시험하는 큰 문제이다. 그것은 충성스럽고 진실한 자들과 불충성스럽고 범법하는 자들 사이를 가르는 구분선이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며, 계명을 준수한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스스로 셋째 천사의 선포 아래 있다고 믿는 자들은 그 기별 안에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그들은 그들의 편리에 맞추기 위하여 안식일의 요구를 축소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원고 34, 1897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있는 백성이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한 날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있어야 될 자리를 오래 전부터 찬탈하여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을 안다. 큰 반대의 와중에서도 그들은 저희의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셋째 천사의 표준 하에 그들의 위치를 정하였다. (원고 48, 1900).

만약 진리의 빛이 그대에게 제시되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일요일 준수는 성경상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지만, 그래도 그대는 여전히 거짓 안식일에 집착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일”이라고 부르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를 거부한다면 그대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언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되는가? 성경에는 일요일이 보통 일하는 날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대가 짐승의 표를 받기로 하고 하나님의 인 받기를 거절하면서 일요일에 일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법령을 순종할 때이다. 우리가 이마에나 손에 이 표를 받으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선고된 심판이 우리에게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주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찍힌다. (리뷰 1897. 7. 13) (화이트주석, 계 14:9-12)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의 위대한 기념일인 안식일이, 특히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계명을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인간에게 회복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6 증언, 266)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인은 주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제칠일 안식일의 준수에서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출 31:12, 13). 여기에 안식일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징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다. (8 증언, 117)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쁨으로 부르짖을 때, 안식일이 세상에 주어져서 인류는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분께서는 제칠일에 안식하시고, 그 날을 그분의 안식의 날로 축복하시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그 날을 주셔서 그분을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하셨다. (8 증언, 197)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자신의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심으로 그 중요성을 입증하셨다. 무서운 위엄 가운데서 그분께서는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그분의 주권과 권위를 알리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신성성과 그 율법 준수의 중요성을 백성들에게 감명시켜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율법이 주어진 일에 수반된 능력과 영광은 그 중요성을 나타낸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우리의 구속주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다. (8 증언, 198)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옛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칠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출 31:13, 17, 16) (8 증언, 198)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 곧 그들은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이며, 그들이 그분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표징이다.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고 그분의 충성된 백성과 그분의 율법의 범법자들과를 구분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다. (8 증언, 198)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표징에 의해서 구별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저들은 천국에 대하여 나타내는 이 충성의 표로써 하나님의 종됨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위적인 시험들은 현대진리를 구성하는 위대하고 중요한 교리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려버릴 것이다. (전도 212)

불법의 사람의 매개를 통하여 안식일의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야 했을 자리에 일요일이 높임을 받도록 사람들이 인도를 받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며, 그분의 율법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 셋째 천사는 하늘공중을 날며 지상의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선포하는 것으로 상징되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곳에 전해져야 한다. 그것은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야 하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이 보낸 기별에 유의하라고 하며 어떤 경우에서도 부주의하여 그것을 듣거나 영접하기를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별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고, 우리에게 빛이 이르렀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취고 있는 안식일에 관한 빛을 가지지 못했던 자들은 그 빛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 이는 그 빛이 그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고 그들은 정죄함 없이 죽었다. {RH, April 25, 1893 par. 8}

지금은 주님의 종들이 지구 모든 곳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져가도록 쇠약하지 않는 열성을 가지고 일할 때이다. 이 기별의 사업은 방방곡곡에 퍼지고 있지만 우리는 만족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의 불변성에 관한 진리를 수 천명들에게 가져가기를 서둘러야 한다. 우리의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출판소에서, 요양원들에서 기별은 전파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나 첫째, 둘째와 셋째 천사들의 기별들로 대표된 위대하고 거룩한 사업의 동참하도록 분기시켜야 한다. 지구의 거민들을 향한 이 마지막 경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부여하신 중요성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다. 진리는 아주 명백하게 제시되어서 어떠한 범법자도 들은 후 안식일 계명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RH, March 26, 1908 par. 3}

### 마지막 시험

안식일 문제를 다루기는 하였으나 이 시대의 중요한 시금석(시/함)으로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공포하신 법을 범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신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사 58:1).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어야 한다. (6 증언, 60)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쳐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행 3:19)르는 “늦은비”(호 6:3)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계 7:2)을 받았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종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계 16:17)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계 22:11)고 엄숙히 선언하시자 온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는다.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효는 찼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는 바야흐로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어지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된다. (쟁투, 613-614)

지금까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흔히 민심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로만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널리 세상을 들끓게 되면 오랫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던 이

사건이 가까와 옴을 보게 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큰 결과를 거둘 것이다 {RH, April 27, 1911 par. 18}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시험들을 주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시험이며 여러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영원토록 표징이 된다. 영원히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내용이다. (3 기별, 287)

나는 나의 형제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과 참 안식일의 준수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는 표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다. 잠들어서 무관심하게 되어 있는 자들을 깨우도록 하자. 우리는 거룩하게 되라는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두드러진 특성들을 간직하든지 않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과거에 취해 온 것보다 한층 더 진리와 의를 위해 결정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귀중한 책임이 지워져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지키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는 선은 틀림없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9 증언, 251)

우리 신앙의 기둥들 중에는 극히 중대한 주제들, 곧 안식일과 하나님의 계명 준수가 있다. 추론적인 개념들은 선동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묘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찬성하지 않는 어떤 요점을 가지고 모든 것의 주의를 그 요점으로만 향하게 하여 논쟁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확대시키는데 그 요점은 실제로 그리 중대한 주제가 아니며 다르게 이해될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요점들에서 우리의 형제들을 빗나가게 하는 성격의 모든 것들은 배후에 뒤야 한다는 것을 나는 두 번이나 보았다. {15MR 21.2}